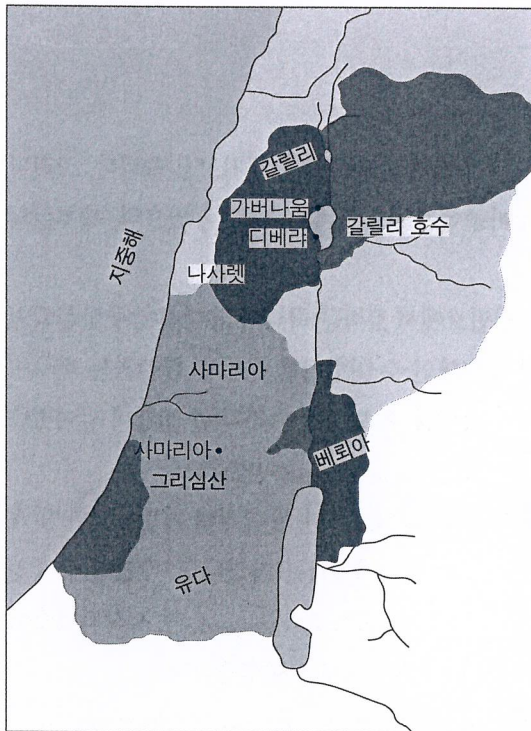


제 46 강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마가복음 연구 I)

■ 성경본문 마가복음 1:1-8:30 ■

프렐류드(Prelude)



사마리아

오늘 우리는 공관복음 두 번째인 마가복음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으나 그의 본명은 요한(사도행전 12:12)이었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하여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행 12:12). 바로 이곳을 마가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공동체는 마태공동체와는 달리 가난한

자, 소경, 어린이, 과부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모인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가 아

람말로 예수를 전할 때 젊은 마가는 잘 기억했다가 후일 고대 그리스어(Greek)로 마가복음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악랄한 정치적 박해를 가하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피해 이곳까지 도피해온 신자들에게 귀신과 악마까지도 능히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다가온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고난의 복음이라 합니다.

I. 주요 내용

1. 예수가 행하신 이적들(마가복음 1:22-8:30)
2. 마가가 교회에 주는 교훈(마가복음 4:35-41, 5:1-43, 6:53-56)

II. 시대적 배경

마가복음은 주후(AD) 70-8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유대인 100만여 명이 로마군에게 학살을 당한 바로 후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직후였습니다.

주후 66년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군 하나가 유대인에게 암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로마군대는 유대인 수십만 명을 무차별 학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유대 젊은이들은 반격을 가하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유다-로마전쟁’(Jewish Roman War)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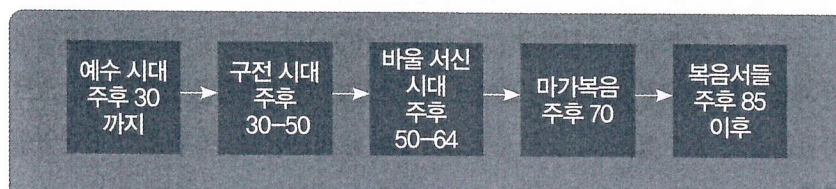
그러나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3년 뒤 마지막 거점이었던 ‘맛사다’(Massda)마저 빼앗기면서 1,000여 유대인 게릴라는 자결하고, 수많은 유대인은 고향을 버리고 이방 세계로 도피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공동체도, 마가공동체도 둘 다 디아스포라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게서 시작한 그리스도교 박해는 날로 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

인이 예수를 버리고 배교자가 되었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와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붓을 들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이적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굳게 붙잡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예수가 행하신 이적들(마가복음 1:22-8:30)

‘이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를 ‘인간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막 1:7)를 고백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으며(막 1:11), 그 후 수많은 이적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적에 관한 무려 200여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삼 분의 일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때 이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위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18개의 이적 기사는 크게

1. 귀신축출,
2. 병자를 고쳐주신 이적,
3. 자연법칙을 초월하신 이적,
4.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귀신을 내쫓으신 이적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막 1:21-28), 거라사 지방에서도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막 5:1-20).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으셨으며(막 7:24-30), 병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풀어 주셨습니다(막 9:14-29).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었으며, 귀신은 예수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막 5: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막 16:17). 귀신은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2) 병자들을 고치신 이적

예수께서는 수많은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막 1:34, 3:10, 6:55-56).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막 1:29-31), 문둥병자(막 1:40-45)와 중풍병자(막 2:1-12), 한 손이 마른 자(막 3:1-6),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 온 여인(막 5:25-34),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막 7:31-37), 벳세다의 시각장애인(막 8:22-26)과 맹인 바디매오(막 10:46-52) 등 모두를 병마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병 고치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몸을 상하게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을 풀어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막 1:45, 2:12, 7:37, 10:52). 몸의 치유는 영혼의 치유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3) 자연법칙을 초월하신 이적

광풍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막 4:35-41),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막 6:30-44), 물 위를 걸으시고(막 6:45-52),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시고(막 8:1-10),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막 11:12-14, 20) 이적들은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운행을 친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

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 역사의 운행자이시며, 인간과 우주를 본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4)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죽음은 타락 이후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를 증언하는 히브리서는 우리 인간모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적에서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되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막 5:22-24, 35-43).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2. 마가가 교회에 주는 교훈(마가복음 4:35-41, 5:1-43, 6:53-56)

마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통하여 당시 가난하고 소외되었으며, 병 들고 나약한 마가공동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을 심어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횡포와 탄압을 받는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심어주려 하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는(막 4:35-41) 이 모진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정처 없이 표류하는 모든 사람을 능히 견져내실 것입니다.

거라사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는(막 5:1-20) 귀신 들린 로마 군대와 인간을 억압하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는(막 6:53-56)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는(막 5:22-24, 35-43) 장차 우리의 죽은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보여주는 예증이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부유하고 유식한 마태공동체에 비해 소외되고 가난하며 노약자가 많았던 마가공동체는 이중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고 안으로는 가난과 병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2. 마가는 이중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마가공동체 신자들에게 로마 귀신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따뜻한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지금 당하는 정치적 핍박을 인내하고, 가난과 병마를 이겨내는 신앙과 용기를 주어야 했습니다.

3. 여기서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셨으며, 동시에 길가의 들풀과 꽃 한 송이까지 아끼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4. 마가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강하신 '부성'(父性)과 하나님의 따뜻하신 '모성'(母性)을 겸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과 밖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